



창조적 상상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동훈 (디자인집 이트디자이너)

죽은 창의성과 참된 창의성 (지금은 창의성의 시대인가?)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두 번 부러웠던 것이 아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어둠 속 단판 승부는 어머니의 떡 썰기 내용으로 싱겁게 끝이 났다. 요새말로 '고유수용감각'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떡 썰기를 어찌 당하라. 항상 새로운 디자인의 압박에 시달리는 펠자나 마감일을 앞둔 작가에게는 미안하지만, 가끔 '한석봉 어머니의 삶'이나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식 허부'가 더 보람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창작의 길을 오랜 세월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블링크>에서 말하는 그들만의 통찰력이 생겨 일상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자관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최근 불고 있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인재양성, 우뇌형 인간 등의 바람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신거공약, 주민센터 문화 강좌,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 이르기까지 창의, 창조, 혁신, 상상 등의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 딱히 창의적인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일까.

용어는 과용을 넘어 오용되고 있다. 주입식 사교육 기관에서 '몰입식 교육'을 표방하며 내놓은 수많은 교재와 수강코스 전단지 등, 물인(flow) 이론을 펼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와 한국의 이러한 실태를 본다면 무어라 할 지 상상만으로도 열이 난다. 한마디로 '학문의 키지화'가 아닐까 싶다.

아래 용어들이 이해되는가?

'혁신경영지원팀', '창조관리운영팀', '혁신당원대회', '청소년창의토크콘서트', '창의지성인재개발' 등, 여기서 '혁신', '창조', '창의'를 삭제한다고 크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이들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좋다. 여기까지는 '한국화로 인정할 만하다. 그것이 시장의 상술이든 정치적 순발력이든 '한국의 현지화'로 웃어넘길 만하다. 그러나 상상, 창의 등의 개념에서 그리스도인이 민중에게 살피야 할 것이 있다. 부족한 필자의 시선은 이렇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은 창의성의 시대에 반한다는 의식의 일반화, 쉽게 설명하자면, 절대적 가치를 맹신하는 기독교 사상은 사고의 유연성이 없고 타인의 가치관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둘째, 창의성을 얻기 위해 학문 간 통섭이 요청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주체학문이 '무신론적 과학'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여전히 과학의 신화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창의적인 과정과 그 결과물에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 면죄부를 주는 (특히 문화, 예술 영역에서) 사회적 통념의 확산이다.

즉, 기독교인들은 내부적으로는 이원론적 사고를 해결하고, 밖으로는 기독교가 결코 창의성을 억제하는 시대착오적 종교가 아니며 과학과도 대척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 윤리말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죽은 창의성'이 아닌 사회공동체를 위한 참된 창의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필자는 리처드 도킨스나 최재천 같은 무신론 과학도의 허구성과 저각 의도를 분별할 입장과, 능력도 안되나 소위 한류 영화나 게임 등 창의적 콘텐츠를 생산할 때 그 콘텐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사회적 파장과 사회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결과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을 떠어 살릴 문화 콘텐츠를 양산해야 한다는 것에서 발도된 이상한 '애국심(?)' 또는 대중적 합의(편견) 합의가 됐는지 묻고 싶다가 축소된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에서도 드러난다.

창의성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도덕적 면죄부를 남발하면서까지 시도하는 창의성, 상상력, 창조성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향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로이드

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경쟁'이 화두가 되거나 '경쟁'을 리더의 조건으로 보는 저서들이 지지받는 것도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능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자들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요즘 같은 상태주의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기독교인의 세계 인식은 결코 시대착오적 가치관이 아닌 것이다.

참된 창의성은 참된 자유에서 나온다

좀 더 나아가서 앞서 지적한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창의성에 대해 말해보자.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려야 한다. 창의성을 높이려면 자유로워야 하는가? 자유로워야 한다면 그 자유는 자유로운 지식인가, 자유로운 삶인가?

기독교세계관에 따르면 '사고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 혹은 인간을 위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 종속된다. 참된 창의성은 참된 자유에서 나온다. 참된 창의성은 '종교로부터의 자유' 같은 방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유, 그분이 믿으신 세상에서 책무를 다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니 창의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후터의 분별력을 빌려서 말하자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려는 욕구에 종속된 노예적 자유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세상을 책임감 있게 대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는 창의성이 절제력, 사회적 가치의 확산, 내적 동기로 향상된다는 심리학자들의 실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수세기 전 에드워즈나 어거스틴 같은 분들의 저서에서 밝혀온 진리의 파편에 불과하다. 참된 미덕이란 보편 존재에 대한 호의에서 나오며 '미'와 '탁'을 통칭적으로 설명한 에드워즈의 주장이나 그보다 앞서 '존재와 선의 일치'를 가지는 아름다움을 논한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들은 교육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닌 목회자요 신학자였다.

즉, 진리를 아는 사람이 사랑의 판단력을 소유하게 되며, 그의 의지는 공동체의 가치를 향한 창의적인 열매

것은 상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교회, 나아가 세상과 유기체적 관계에 있음을 이중언어로 표현한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심리학자인 미하이도, 바우허우스의 설립자인 그로피우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동기 부여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보자. 내적 동기를 통한 창의성은 '사회적 지능'이라는 말로도 통한다. '사회적 지능'이란 대인 관계에서 자신을 포괄한 사람들의 감정, 사고,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며, 관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유용한 사회적 신물을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기술이다.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인 가드너는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업무 영역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대인 관계 지능이라 하면서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것은 '독창성'에만 개인성을 두는 일반적 시각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가진 창의성은 '관계성'에서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창의성에 '관계'의 특성이 '함의'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사회적 창의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 반 퍼슨은 창의성을 사회적 가치와 책임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기를 "인간이 처한 상황을 윤리적으로 개척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때 권력 구조에 간혀 있던 책임감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얼굴을 되찾게 된다. ...인간은 창의성을 통해 권력 기계의 부품에서 벗어나 인격이 되며 비로소 우리는 책임성이 진실로 실현되는 사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창의성이 발휘될 때는 대부분 진입 장벽이 있는데, 반 퍼슨에 따르면 보통 변화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것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와 그 혜택을 누리는 자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은 능동적으로 변화를 제안하고 통합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게 한다. 소통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되고 그 결과가 나타



서 주지할 것은 내적 동기는 '개슈를 물어오는 성과보다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로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증명되는데, 미하이는 19세기 산업혁명, 두 번의 세계대전,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디자인 영역에서 모더니즘 디자인의 표시이자 교과서라 불리는 바우허우스의 출현을 예로 살펴보자. 산업혁명 이후 파시즘, 사회주의 등이 등장하던 정치적 혼란기에 그로피우스 등의 조형 예술가들은 윤리적 양심(또는 마음의 불균형, 에드워즈)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대 도시 빈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노동자들의 비인격적 근무 환경, 저질 생선품에 따른 삶의 질적 퇴화를 목도하고, 그들의 조형언어로 양심선언을 한 것이 바로 바우허우스라는 학교의 설립이었다. 이것이 '예술의 대중화'를 뜻하는 '디자인의 근대적 탄생 배경이다. 이들은 허블러에 의해 폐교 당한 후 영웅 대접을 받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디자인을 국제 디자인화 시켰다. 미하이는 '확실히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존스 목사의 말처럼 '거짓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드러내려'는 것은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증명하고 싶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을 창양하기 위해 창의성을 미끼로 끌어들이는 생각이 없다. 다만 상상력과 기독교세계관 사이에서 객관성을 견지함으로써 카이퍼가 말한 '주님의 주권을 단 한 뼘도 빼앗기지 않음을 드러내려 할 뿐이다.

창조적 상상력은 어디서 오는가?

어마빌레(Ambilio)는 지식과 경험, 창의적 사고력, 내적 동기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3대 요소로 보았으며, 토렌스(Torrence)는 창의성은 사람의 순수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한 경우에는 동기가 핵심변수가 된다고 보았다.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되는데, 내적 동기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힘이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의 즐거움, 만족감, 자기 기쁨, 가치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동기는 활동과 독립된 외부에서 투입되는 힘으로 물질적 보상, 승진, 점수, 상급 등을 들 수 있다.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주요 요인 중 내적 동기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부족한데, 여기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hy God!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생 1-5학년)

▶2009년생부터 입학 가능

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특별히 문화사역자이거나 문화사역을 꿈꾸는 이들은 기독교세계관의 빛 아래서 등가변형된 이중언어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죄와 유혹'에 대한 오웬의 통찰, 곧 그리스도인이 라도 얼마나 쉽게 영혼의 삶과 육체의 계층으로 선하신 창조주를 떠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선한 창조의 성의 책무로부터 떠날 수 있는지를 아는 자기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은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 외에 그분의 창조성도 닮았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인만의 무기일 수도 있다. 미와 덕이 분리되지 않듯,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성도 분리되지 않으니 말이다. 바빙크의 말처럼 구분은 되어도 분리는 될 수 없는 지식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다.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여 강화된다. 창의성은 어디로 향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창의성(말란트)을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흥성 되어 선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창조성을 따라 그분의 창조활동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이보다 더 좋은 창조를 상상할 수 있을까?

를 맺게 된다. 사랑으로 소명을 지키며 창의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주체가 누가 되든지 말이다.

창의성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는가?

그러면 창의성은 누가 평가할까? 시대정신의 잣대와 우리의 창의성에 대한 잣대가 다르니 분명 그 평가도 다를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과 문화 곧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자.

창의성을 평가하는 시대정신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흐마노프는 당대의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았다. 또 파리의 렌드마크인 에펠 탑과 몽파르네는 파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일으키는 지구촌 테라급 문화 상품이라는 것 외에 건축 당시 모두 파리 시민의 격렬한 반대와 비아냥을 견뎌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듯 역사는 당대의 비평가나 대중의 평가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교훈한다. 그럼에도 오늘날은 새로운 발상, 상상력이 발휘되면 우상처럼 찬사를 보낸다. 창의성이 없는 자의 열등감일까? 아니면 체스터튼의 말대로 경이로움에 찬사를 보내는 인간의 고유한 갈망일까? 미디어 콘텐츠는 조금 더 외로운 창의성을 떠받든다. 기괴하게 꼬인 인생으로 근친상간에 빠진 울드보이, 총년의 청부살인자와 10대 소녀의 사랑을 다룬 '태왕' 등은 상상과 설정의 참신함(?)으로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 평가에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창의성은 무엇이 다른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우리의 창의성은 무엇이 다른가? 감사하게도 우리의 분별은 그들의 요구와 달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위에 서 있고 그 위, 즉 성경의 빛 아래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 영역에서 자유를



나동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조난 에드워드에게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조난 에드워드의 사상에 근거한 '디자인의 책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디지인즈의 아트디렉터이며 문화부서인 문화스피어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몽촌염전교회의 집사이다.

전과목 영어 수업

(한국교회사, 한국역사 제외) 각 학년 원어민 담임교사제

리더십과 관계를 위한 최고의 기독교적 품성교육

고전어(라틴어)

영어 어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전어 수업

교과서 대신 살아있는 인문고전을 교재로 사용

특화된 예능 수업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운영 수업 및 다양한 체육 수업

SICA

강남 소재 유일의 차별화된 기독교적 고전학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문의 | 02.557.7710
sicacademy@dcty.co.kr
www.sicacademy.org